## | 현불논단 |

# 본래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약탈문화재 취득시효 인정하면**
**약탈국가 소유권 주장 명약관화**

**문화재는 그 나라 문화 결정체**
**민족 혼과 얼 담긴 상징적 의미**

**약탈당한 전통문화재 넘기기 전**
**다방면 전문가 의견 청취했어야**

**한일 공동으로 교환 봉안하거나**
**상호 참배법회로 가교 역할 가능**

10월 26일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을 일본 사찰에 있다고 최종 판결을 하여 결국 대마도 관음사로 돌아가게 되었다. 관음상이 600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고향에 왔다가 집에 들러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니 마음이 아프다.

2012년 대마도 관음사에 우리나라에서 수탈해 간 불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한국인 5명의 자칭 문화재 의병 절도단이 모의하여 불상 두 점을 훔쳐서 한국으로 반입하다 경찰에 체포된 소설 같은 희한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불상 2점을 사건의 증거물로 압수했다.

압수된 2점의 불상을 놓고 한일 간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물론 일본에서는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서산 부석사는 관음상 안의 기록물에 "1330년 조성하여 서산 부석사에 봉안했다"는 기록을 들어서 원래 소유자의 권한을 주장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한 점의 금동여래입상은 부석사와 달리 소장자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2015년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 관음상은 1330년에 조성되어 서산 부석사에 봉안되었는데 일본 왜구들이 자주 침몰했던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서산 바다에 침입하여 방화하고 약탈해 가서 그동안 대마도 관음사에서 봉안해 온 것이다.

2017년 열린 1심 재판부는 부석사의 승소 판결을 하였다. 검찰은 해당 불상과 불상 안의 기록물이 위작일 가능성을 제기하여 항소하였다. 2023년 2월 2심 재판부는 일본 측의 손을 들어 주었고, 마지막 대법원은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타인의 물건이라도 일정 기간(20년) 평온하고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20년 취득 시효 완성' 의 일본 민법의 법리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1995년 채택된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사법통일국제연구소 협약' 에는 "협약 국가 간에 취득 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대로 우리가 약탈문화재의 취득 시효를 인정할 경우 앞으로 모든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약탈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 되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친일파 DNA인가. 우리는 왜 일본에게 늘 양보하고 작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 민족문화재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독도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면 어떻게 잘 지켜낼지 걱정이다.

문화재는 그 나라 민족 문화의 결정체로서 그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잘 보호하고 발전시켜 자손만대까지 전승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들에게 약탈당한 전통문화재를 우리 손으로 그렇게 쉽게 넘겨주는 행위는 경솔한 처사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다방면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숙고하였더라면 한일 양국이 서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11년 우리나라가 프랑스로부터 반환받은 외규장각 도서(병자호란 때 약탈당한 도서)는 양국의 정상이 회담으로 반환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파리박물관 사서직원 170명이 반환 반대성명을 발표하여 외규장각 도서를 5년 마다 계속 갱신해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양국이 서로 양보하고 노력하여 반환받은 실례가 있다.

문화재는 본래자리에 있어야 가장 빛이 난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정신으로 서산 부석사와 대마도 관음사가 자매사찰을 맺고 관음상을 공동으로 교환 봉안하고, 정기적으로 상호 참배법회를 연다면 양국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⑳ 디즈니+드라마 무빙

# 진짜 초능력은 공감능력

올해 방영된 드라마 중 단연 군계일학은 디즈니+ 오리지널에서 공개된 '무빙' 이다. '무빙' 의 장르는 뭐라고 딱 꼬집을 수가 없다. 하늘을 날고, 재생능력이 있고, 오감이 발달한 초능력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히어로물이다. 히어로들이 초능력을 쓰면서 다툰다는 점에서는 액션영화이다. 그런가 하면, 초능력자들이 정신적으로는 미숙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는 성장영화로 봐도 무방하고, 초능력이 대물림되고 2대의 가족사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가족영화로 봐도 무방하며, 초능력자들이 서로의 비밀을 알아가면서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로맨스 영화로 봐도 무방하다.

〈씨네21〉 인터뷰에서 박인제 감독은 "현실에 발을 디딘 채 초능력이라는 장르를 타고 움직이는 작품의 밑바닥에 성장과 가족애 그리고 사랑이라는 기조가 흐르고 있는 작품이었기에 기꺼이 연출을 맡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대본을 보고서 박인제 감독은 쾌히 연출을 승낙했고, 그 대본에는 이미 초능력, 성장, 가족, 로맨스 등 키워드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강풀 작가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원작자가 대본 작업까지 맡은 까닭에 드라마의 줄거리는 원작을 유지하되 일부 에피소드는 변경됐다. 가령, 극중 국정원 요원들에게 부여된 암호명은 원작에는 없다. 원작에서는 이미현이 추어탕집(봉석이네 추어탕)을 운영했으나 드라마에서는 돈까스집(남산 돈까스)을 운영한다.

NTDP (국가인재육성프로그램)의 입안 시기도 원작과 다르다. 원작에서는 입안 시기가 2세대 초능력자들이 태어나기 전인데, 드라마에서는 2세대 초능력자들의 능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무빙' 의 재미 중 하나는 봉석(이청하)과 희수(고윤정)이 나누는 풋풋한 사랑 장면이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봉석의 초능력이 희수라는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서 로맨틱하게 극대화된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라는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의 가사가 떠오른다.

봉석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르고 특별한 것"이라고 말하는 희수의 대사는 드라마의 주제와도 맞물려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자신과는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신과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서로 길들여져 갈 때 상대방은 더욱 특별해지는 것인지도….

그런가 하면, 1대의 김두식(조인성)과 이미현(한효주)의 사랑 이야기는 과거에 펼쳐지는 이야기인데다가 남북문제가 얽혀 있어서 아릿하게 향수를 자극한다. 1대에서 2대로 이어지는 주인공들의 사랑이야기는 인생유전(人生流轉)을 떠올리게 한다.

미현이 자신의 초능력을 뽐내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어린 아들 봉석에게 하는 "사람의 진짜 능력은 공감능력"이라는 대사도 이 드라마의 주제를 명확하게 있다. 부처님은 신통력을 지녔음에도 신통을 부리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신통력을 금하게 하였다.

〈보적경〉에는 부처님이 신통에 대해 문수보살이 "설법이 큰 신통변화입니다. 중생에게 대자비를 베풀어 방편을 써서 갖가지 법을 설하니 이를 능가할 신통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대목이 있다.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히어로가 아니겠는가?

〈소설가〉

## 社 說

# 교회에 돌봄시설 만들면 저출산 해결되나

개신교계가 교회시설을 유아 · 아동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개신교계 TV인 CTS의 김경철 회장이 본부장으로 있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출대본)' 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법 및 관련법을 개정해 종교시설을 유 · 아동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월에는 이채익 · 김회재 국회의원이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를 개최했다.

범종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출대본은 개신교 인사들로 채워졌다. 지역본부장은 모두 목사이고, 토론회를 주최한 이채익 의원은 국회조찬기도회장, 김회재 의원은 교회 장로기도 하다.

사실상 '국고로 유 · 아동 선교를 하겠다' 는 개신교계의 사업에 불교계가 반발한 것은 어찌보면 수순이다. 실제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2일 '교회 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 철회 성명서' 를 채택 · 발표했다. 중앙종회는 "저출산과 아동돌봄을 볼모로 국비를 지원받아 교세를 확장하려는 개신교의 움직임에 공공돌봄정책이 붕괴 위기에 처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구절벽의 상황에서, 기존 돌봄시설들이 정원 미달로 폐업하는 상황에서 교회와 종교시설을 돌봄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저출산의 위기는 돌봄시설 부족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게 됐는지부터 살피는 게 우선 아닌가.

사회의 위기를 자기 종교의 교세 확장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라. 개신교의 성경에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누가복음 12:15)"고 써 있음을 알라.

# 이천오층석탑 환수, 우보천리 자세로

일본 오쿠라호텔 야외에는 고려시대 석탑 2기가 있다. 하나는 이천오층석탑이며 다른 하나는 평양 율리사지 팔각칠층석탑으로, 모두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에서 무단으로 반출됐다. 이중 이천오층석탑은 신라계 석탑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고려 초기 석탑으로 그 가치가 높다. 이 석탑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 출품되기 위해 경복궁으로 반출됐고, 이후 식민 재벌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郞)의 탐욕에 의해 1918년 반출돼 현해탄을 건너가 현재까지 일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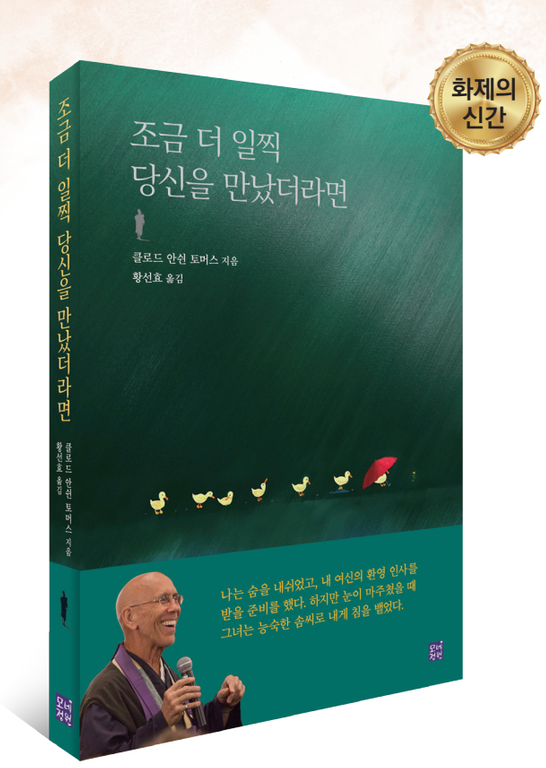
이를 환수하기 위해 이천시민들을 중심으로 2008년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가 구성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지난 10월 10~12일에는 환수위 대표단이 방일해 오쿠라문화재단과 석탑 환수를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 자리에서 환수위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명한 환수지지 성명서와 김경희 이천시장이 서명한 환수 촉구서를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석탑의 환수 협상을 재개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석탑의 상태다. 환수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풍화로 인한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고, 훼손된 부분을 시멘트로 처리한 상황이라서 예후도 안 좋다고 한다. 우리의 석탑을 호텔 정원 장식품정도로 대하고 있는 오쿠라재단의 몰상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석탑의 환수는 장기전에 돌입했다. 부석사 관음상에 대한 대법원이 내린 최악의 판결은 환수운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래도 석탑의 환수는 이뤄져야 한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시민으로 힘으로 천천히 가자. '우보천리(牛步千里)' 의 자세로.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